

바이든 취임 연설 키워드는 '단합'

론 클레인 비서실장 내정자

“취임사는 진전과 단합 메시지”

코로나 대응·트럼프 지우기 박차

조 바이든 미국 차기 대통령의 취임사를 관통하는 주제는 '미국의 단합'이 될 예정이다.

론 클레인 바이든 당선인 비서실장 내정자는 17일(현지시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일 일(현지시간) 당선인의 취임사와 관련해 "나라를 진전시키고 단합시키며 일을 해내는 메시지"라고 소개했다.

백악관 공보국장 내정자인 케이트 베딩필드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사에 대해 "당선인은 지난 4년간의 분열과 증오를 뒤로 하고 국가를 위한 긍정적·낙관적인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4년을 지나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취임 일성으로 택하는 셈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승리 이후 당선인 신분으로 연 여러 회견에서도 미국의 치유와 단합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취임식준비위원회도 지난 11일 이번 취임식의 주제가 '하나가 된 미국'이라고 밝혔다. 취임사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일생일대의 연설이 될 예정

이다. 29세에 상원의원에 당선돼 평생을 정치에 몸담아온 바이든 당선인에게 대통령 취임 연설이 각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직후 곧바로 신속한 코로나19 대응 및 '트럼프 지우기'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클레인 내정자는 전날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일 당일부터 내용을 코로나19·이민·기후변화·사법개혁 등 관련 조치를 날짜별로 제시한 바 있다.

클레인 내정자는 "바이든 당선인은 루스벨트 이후 아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는 대통령일 것이며 즉시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결심하고 취임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미국이 대공황에 신음하던 1933년 취임했다. /연합뉴스



취임식 앞두고 군사요새 된 워싱턴DC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사흘 앞둔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인근에서 주 방위군이 출입을 통제한 채 경비를 서고 있다. 미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와 폭력 사태에 대비해 취임식 당일(20일)과 다음날 링컨기념관, 워싱턴기념탑, 의사당까지 이어지는 '내셔널 몰'을 폐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스가 지지율, 취임 4개월만에 반토막

74%→39%...역대 최대폭 추락

요미우리 "정권 운영 곤경에 빠져"



작년 9월 출범 초기 고공행진을 하던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4개월 새 반 토막이 나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지율 급락의 주원인은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꼽힌다.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이 15-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스가 내각 지지율은 39%로 직전 조사(작년 12월 26-27일) 대비 6%포인트 하락했다.

응답지는 후대전화 550명과 유선전화 543명 등 총 1093명이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49%로 같은 기간 6%포인트 상승했다.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상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9월 16일 출범 직후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은 74%에 달했다.

출범 4개월 만에 내각 지지율이 35%포인트나 추락했다. 출범 4개월 하락 폭으로는 하토야마-아소 두 내각의 30%포인트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스가 내각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 급락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66%에 달했다.

요미우리는 스가 내각의 지지율 급락에 대해 "정권 운영이 곤경에 빠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관방장관 시절 보여준 스가 총리의 위기관리 능력은 자취를 감췄다는 평가도 나왔다. 집권 자민당의 한 중견 의원은 스가 내각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에 대해 "스가 씨를 '선거의 얼굴'로 삼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스가 "한국에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하겠다"

한국측에 양국 갈등 책임 돌려

"조건없이 김정은 마주할 결의"

스가 요시히데(사진) 일본 총리는 한일 갈등의 해법을 한국이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18일 되풀이해 밝혔다.

스가 총리는 이날 일본 정기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현재 양국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다"고 한일 관계를 진단하고서 "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2018년 확정된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 판결과 후속 사법 절차 및 최근 1심 판결이 선고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자료 청구 소송 등

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 등 직접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양국 관계를 회복할 방안을 한국 측이 내놓아야 한다는 뜻을 내비쳐 한국에 책임을 넘긴 양상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등으로 관련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셈이다.

스가 총리는 주변국 외교 과제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정권의 가장 중요 과제로 일본 문제에 관해서는 나 자신이 선두에서 서서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할 결의에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이란 "한국내 동결자산으로 밀린 유엔회비 납부 제안"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밀린 유엔 회비를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자산으로 내는 방법을 유엔에 제안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란 외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티브자데 대변인은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송금 통로가 제한됐지만 지난 수년간 유엔에 연회비를 냈다"라며 "회비 납부 방법에 대한 이란의 최근 제안은 한국에 동결된 우리의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방법으로 유엔 회비를 내기 위해 이란중앙은행의 승인, 협상,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악의와 우리의 자산을 오용할 우려 탓에

유엔이 회비 송금 과정에서 미국의 은행을 중개 금융기관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비의 안전한 송금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유엔 총회 의장단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을 비롯해 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소말리아, 남수단, 니제르 등 10개국이 회비를 밀렸고, 이들의 총회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란이 내지 못한 회비는 이들 10개국중 가장 많은 약 1625만 달러(180억원)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수출대금은 약 70억 달러(7조8000억원)다. /연합뉴스

'푸틴 정적' 나발니, 5개월만에 독일서 귀국...공항서 곧바로 체포

교정당국 "2014년 집행유예 의무 위반"

지지자 수백 명 도착 예정 공항 물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독극물 공격에서 살아남은 알렉세이 나발니(44)가 17일(현지시간) 독일서 러시아로 돌아왔다.

독극물 공격을 받고 독일 베를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온 지 약 5개월 만이다. 그러나 나발니는 예상대로 이날 공항 도착 직후 러시아 교정당국인 '연방형집행국' 요원들에 체포됐다.

반정부 성향 신문 '노바야 가제타' 등에 따르면

나발니는 이날 저녁 8시 10분께 러시아 항공사 '포베다'(승리)의 베를린-모스크바 노선 항공편을 이용해 모스크바 북쪽 외곽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부인 올리아가 동행했다.

나발니가 탄 여객기는 당초 모스크바 남쪽 외곽 브누코보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으나 착륙 얼마 전 전격적으로 항로를 바꿔 북쪽의 세레메티예보 공항에 내렸다. 브누코보 공항 활주로는 이날 제설차 고장으로 잠정 폐쇄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나발니는 세레메티예보 공항 도착 후 입국심사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고 그의 변호사가 트위터

를 통해 밝혔다.

연방형집행국은 이날 보도문을 통해 "세레메티예보 공항에서 형집행국 모스크바 지부 요원들이 집행유예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수배 대상이 된 나발니를 체포했다"고 확인했다.

나발니는 집행유예 취소 소송이 예정된 이달 말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나발니는 귀국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나는 두렵지 않다.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에 대한 형사 사건은 조작된 것임을 안다"고 저항을 다짐했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Nim e Bbong Solar Energy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